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8. 11.(수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철도운영과	담당자	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이명익 • ☎ (044) 201-4636, 4637	
보도일시		2021년 8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1.(수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“연휴 대비 철도분야 코로나-19 방역관리 집중점검”

- 11일 철도기관 합동점검회의에서 방역계획 점검·방역 지침 제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광복절, 추석 등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-19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, (주)에스알, 국가철도공단,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점검회의*를 개최하였다.

* (時·所) '21.8.11(수) 15:00~ / 철도공사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표준 방역 지침에 대하여 운영사와 의견을 나누고 이를 수렴한 지침을 확정·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코로나-19의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간선교통의 중심인 철도분야에서의 방역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,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대책의 현장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우선, 철도공사와 SR은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 이후 시행하고 있는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 등 방역대책의 현장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코로나-19가 종료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
- 또한, 철도운영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추진하고, 승객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.

□ 그동안 정부는 철도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과 철도차량에서의 코로나-19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해 왔다.

- 하루 3차례 이상 역사·차량소독, 역사 내 손소독제 및 자동분사 손소독기, 창가측 좌석 우선 발매 등을 실시하고,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전국 주요역사에서 열차 탑승 전 승객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.

- 이렇듯 선제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역조치로 인해 철도분야는 열차 내 감염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.

- 특히, 지난해 3월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, 철도공사와 협력하여 자가격리가 필요한 해외입국자를 위한 KTX 전용칸과 전용버스로 약 20만여 명*에 달하는 해외입국자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였다.

* 이용객 수('20.3.28~'21.7.31) : KTX 전용칸 199,844명 전용버스 192,461명

□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“코로나-19 재확산으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- “철도 분야 표준 방역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모범방역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